**환상의 텔레포트 “illusion’s Teleport”**
**한 줄 설명:** 외국인 여자 홀로 한국으로 떠나는 환상 같은 꿈, 그것이 현실이 된다.

**기획의도:** 허황된 삶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my Xyes가 치유한다.

**기획포인트:** 주인공의 환상의 감정을 자연과 동화되는 특수연출로 이끌어낸다,
이는 분명 여행장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 **화면연출:** 게임 시작화면 같은 압도감 (몰입감) &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같은 자연 특수 효과연출 (레퍼런스)
* **영상음악:** Ur So Fucking Cool by Tones and I 같은 음악 제작 (레퍼런스)
* **1차 캐릭터연출:** 실제(흑인여인) vs 유령(고스트)
* **대조(묘사):** 자연, 고요함, 힐링 vs 사교모임, 화장, 꾸밈, 클럽 (대조된 상황 연출)

**[시나리오]**

**1. 방 안 / 밤**

컴컴한 침대 위,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한 여인.

얼핏 봐도 유튜브. 스크롤을 내리는 여인… 재미없는 듯한 스크롤 움직임…

핸드폰의 화면을 닫고, 핸드폰을 탁상위에 놓는다.

잠을 자려는 듯…

잠시 후,

핸드폰에서 형광색의 꼬불꼬불한 전기선이 나와,

여인의 좌측 귀로 들어간다…

여인의 두 눈동자가 형광색 별로 바뀐다

형광 빛이 사라지면서, 여인도 함께 사라진다.

**2. 숲 속 (미지의 공간) / 밤**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 오르는 미지의 숲 속.

음산한 분위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여인의 뒷모습 (실루엣 같은)이 화면에 들어온다.

화면, 여인을 계속 따라간다

**3. 숲 속 (미지의 공간) / 시간경과**

눈동자는 보이지 않고,

여인이 걸어가는 도중에

나무들이 커지고, 풀잎들이 자라나지만

음산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4. 절벽 (미지의 공간) / 시간경과**

여인의 시점, 어두운 배경 속 광활한 자연을 훑는다. (자연의 색이 죽어 있다)

여인의 뒷모습과 배경이 화면에 잡힌다.

먼 곳을 향해 우두커니 서 있는 여인,

잠시 후, 늑대 한 마리가 여인의 옆으로 걸어온다.

그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하나,

늑대가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별동별을 입에 문다…

그러자 여인은 실루엣은 사라지고,

화면도 어두워진다…

**5. 자막**

“현재시각 08:00 오전, 서울”

**음악 시작.**

**화면 점점 밝아지고…**

**6. 한강공원 / 아침 / 여인의 시점**

한가롭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딱 봐도 여의도 한강공원이다.

여인의 시점. 주변을 훑는다. 카메라도 같이 움직인다…

잔디 밭 위에서 피크닉,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여인의 옆 눈꼬리,

그런 사람들과, 풍경을 훑는 그녀가 측은히 눈을 감는다.

생각에 잠긴 듯…

**7. 화면삽입 (대조 1) /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화면**

거울 옆에 붙은 전구가 하나씩 켜지고,

보라색 벽지가 더욱 바래 보인다.

딱 봐도 여인의 화장대.

유령의 캐릭터가 화장대 앞에 앉는다.

도구들을 들며 화장을 한다.

화면에는 유령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뒷모습만 보이고…

보라색 빛에서 – 핑크색 빛으로 – 옅은 주황색 빛으로 – 빨간색 빛으로 빛이 변한다…

유령, 색이 변할 때마다 도구들을 하나씩 옆으로, 바닥으로 던진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아니 이래서 무엇을 하나 싶은 감정이다…

유령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Teleport” 번개 모양이 화면에 빵- 뜨면서 거울이 깨진다!

**8. 해방촌 골목 / 오전**

골목을 사진을 찍는 여인의 손목과 핸드폰이 화면에 계속 잡힌다…

골목길 – 골목건물 – 계단 - 비탈길 - 모퉁이 - 화단…

낯설고 신기한 재미를 느끼는 느낌

특이한 책방, 빨래방

이번에는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는다…

해방촌 오거리 속,

모든 게 멈춘다. 정지된 화면 속!

여인만 누빈다… 이 공간의 주인공은 여자 인 듯…

여인, 유령이 되어 다시 사라지면서

주변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9. 망원시장 / 오전**

형형색색의 시장 음식들이 화면에 하나 둘씩 나타난다.

큐브 아이스크림, 닭강정, 닭꼬치, 수제막걸리, 떡볶이 등

시장음식들… (여인의 시점)

여인,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시장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화면 위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음악에 맞춰 드럼을 치듯 정신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음식들….

여인은 계속 혼자 시장투어를 하며 즐기는 모습이다…

활기찬, 인간미 나는 시장풍경들…!!!

화면 점점 주황빛으로 바뀌고…

**10. 화면삽입 (대조 2) /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화면**

검은 실루엣의 사람들이 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나 둘 씩 나타난다

샴페인을 들고 얘기하는 남-녀,

명함을 교환하는 남-녀,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는 남-녀,

…

그 사람들 뒤쪽으로 나타난 유령,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아니 끼고 싶지도 않은 듯한…

유령, 화면 우측을 지나갈 즈음 얼굴이 확대된다.

다크서클이 확 내려 앉은 유령의 얼굴!!

**11. 인서트 – 기차가 지나간다 (화면, 좌에서 우측으로) / 서소문 철길, 서울역 인근
12. 인서트 – 고가도로를 지나간다 (화면, 빠르게 여러 컷) / 서울역 고가
13. 인서트 – 독립문을 지나간다 (화면, 아래에서 위로, 독립문을 통과한다) / 서대문역**

 **14. 인왕산 초입 / 오후**
푸른 잎사귀, 한 잎을 만지는 여인의 손길.

잎사귀가 빛을 발하며 점점 커지고, 바람에 흩날린다…

화면, 잎사귀를 향하고

**15. 시간경과 / 오후**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여인의 먼, 앞모습…

화면에 많은 푸른 잎사귀들이 산발하며 흩날린다… 바람에 휘날리는

생명력이 점점 생기는 듯한 느낌

**16. 시간경과 / 오후**
성벽을 따라 올라오는 여인.

갑자기 성벽이 피아노 건반처럼 운율을 따라 그리며 춤을 춘다.

저 뒤로는 남산타워가 보이고…

뭔가 기분이 힐링 되는 여인…

핸드폰을 꺼내고, 360도 파노라마로 주변을 모두 찍는다… (그냥 좋다)…

저 멀리, 남산타워 꼭대기에 “Teleport” 번개 모양이 화면에 빵- 뜨면서,

여인은 유령으로 다시 변한다

유령은 어디론 가 날아간다…

인왕산 및 서울의 전경이 확 보인다….

**17. 여의도 한강공원 / 오후**

화면에, 따릉이를 타고 지나가는 여인. 천천히 달린다.

서늘한 바람에 유유히 자전거를 타는 여인. (여러 컷, 전환)

한강철교와 노들섬 사이를 지나가는 그 순간,

물 비늘이 반짝이는 한강에 무지개가 옅게 핀다

여인은 의식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

갑자기 귀여운, 돌고래가 튀어 오른다…

퓨~ 퓨~

**18. 시간경과 / 오후**

한강공원 라면기계에서 빠르게 라면이 끓는다.

보글보글…

라면과 짜파게티가 같이 끓는다…

**19. 시간경과 / 오후**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벤치 위에 놓인다

여인, 라면 면발을 섞고, 짜파게티도 섞는다

여인,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음식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다…

벤치 위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는 여인 (여러 컷)

정면에는 원효대교와 남산타워가 보이고…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

에어팟을 끼고 맛있게 저녁을 먹는 여인…

그러다 또 유령처럼 사라진다….

**20. 인서트 - 달마사 (절) / 부처님 동상, 절 처마 등 / 오후**

**21. 달마사 (절) / 오후**

저 아래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 속,

여인이 천천히 걸어 올라온다…

여인, 주변으로 빛이 발한다

(화면 절반 분할)

달마사 화면은 좌측으로 움직이고, 여인은 절을 계속 구경하며

즐기는데 화면 계속된다…

(우측에서 화면 넘어온다, 분할 1:1)

**22. 화면삽입 (대조 3) /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화면**

클럽, 나이트 같은 분위기.

휘황찬란한 조명과 빛들이 무대위로 빵빵 터진다

춤에 미친 군중들… 부비부비…

그 속으로, 어떻게 든 어울려 보려고…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려는 유령…

억지로 춤을 춰보려는 유령…

유령 주위로 어두운 빛이 발한다…

(클럽 화면 우측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달마사(절) 화면으로 다시 꽉 찬다)

**23. 달마사 (절) / 오후 (다시 돌아와)**

저 아래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진 풍경을,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는 여인의 시점…

하늘과 풍경이 핑크색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황홀한 서울의 밤 같은 느낌….

편안함이 느껴지는 여인………

**24. 인서트 - 송리단길 / 밤**

늦음 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송리단길…

(화면 전환, 빠르게)

음식점, 카페, 술집, 펍, 인생네컷 노래방 등등등…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25. 송리단길 (골목길, 롯데타워) / 밤**

롯데타워가 계속 색을 바꾼다…

골목길 사이로 영롱이는 롯데타워…

점점 롯데타워가 확대되다가,

거품이 일렁이는 500cc 생맥주로 대체된다…

**26. 어느 펍 (가게 앞) / 밤**

500cc 맥주가 화면에서 점점 멀어진다.

선선한 가을밤, 야외 테이블에서 여유롭게 맥주를 즐기는 여인.

지나 가는 사람들, 차들…

여인, 혼자여도 상관없는 듯. 만족한 하루의 느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 거리 구경 자체도 재밌는 눈치…

그런데, 저 옆에서 빛나는 롯데타워 뒤쪽에서 익숙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진다.

점점 여인 쪽으로 가까워 오는데…

화면, 서서히 어두워 지고

**27. 숲 속 (미지의 공간 다시 돌아와) / 절벽 위 / 밤**

이전 과 다르게, 자연경관 그대로의 색으로 변했다.

생명력 있는 자연 속,

화면 점차 밝아지고…

별똥별을 입에 물고 여인에게 날아오는 늑대.

여인의 옆에 별똥별을 놓고 사라지는 늑대.

여인… 별똥별을 천천히 줍는 그 순간

화면, 섬광!

**28. 방 안 / 아침**

꿈에서 깨는 여인.

뒤척이다…

핸드폰의 잠금 화면을 푼다.

My Xyes의 Posting Detail 페이지다.

롯데타워를 찍었던 그 장소다…

그 마지막 장소가 화면에 점점 확대된다…!!

화면 위로,

**29. 자막**

Virtual & Real

Your Friend

My Xyes.

No Face, Photo & Video Sharing App

끝.